

신바람 해결사 이범호, 더욱 빛난 이유있다

특&Talk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이는 이번 시즌에 존재하는 짙은 어둠도 알고 있다. 스포트라이트가 강할수록 그들은 더 진하다. 이범호에게 KIA 타이거즈는 빛이자 어둠이었다. 국가대표 3루수가 타이거즈의 3루수가 됐던 2011년은 이범호에게 찾아온 제2의 전성기였다. 일본에서의 쓴 실패를 잊게 한 신나는 그라운드가 이범호에게 펼쳐졌다. 이범호는 '신바람 해결사'였다. 힘없이 주자를 불러들이던 이범호의 방망이에 타이거즈의 야구는 꽃을 달았다. 그러나 이범호의 새로운 야구는 이해 8월 찾아온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찍 막을 내렸다. 부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야구 인생에 찾아온 부상. 위기는 좌절이 됐다. 부상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2012년이 무기력하게 지나갔다. 칼을 갈며 2013년을 준비했지만 이범호의 봄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찬스마다 헛도는 방망이에 이범호의 어깨는 더 좁아졌다. 한 번씩 터져나오는 홈런이 이범호라는 이름을 알리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뒤늦게 꽃이 다시 피었다. 중요한 순간에 흐름을 뒤엎는 영앙가 만점의 홈런이 터져

부상 여파 시달리는 윤석민에 애정 담긴 홈런포 선물
마무리 송은범에 "동점 되면 또 쳐줄게 자신있게 던져라"
슬럼프 심정 알기에 따뜻한 동료애로 팀 분위기 이끌어

나오고 있다. 손목힘으로 힘겹게 만들어내던 홈런이 아니라 자신의 스윙으로 그리는 시원한 홈런이 쌓여가고 있다. 마무리 대란으로 불펜이 개편된 6일에도 이범호가 롯데 송승준의 공을 경기장 밖으로 날렸다. 짜릿한 역전승의 시작을 알리는 한방이자 후배에 대한 애정이 담긴 홈런이었다. 홈으로 들어온 이범호는 '손가락 세리머니'를 했다. 이범호가 가리킨 곳에는 윤석민이 앉아있었다. "제가 던질 때도 홈런 하나 쳐주세요"라고 말하던 윤석민에게 홈런을 쳐주고 싶었다는 이범호. 이날 윤석민은 1회부터 강민호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는 등 6회까지 5실점을 하며 고전을 했다. 부상 여파로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후배가 안쓰러웠던 이범호는 약속대로 추격의 시작을 알리는 홈런을 날렸고, 윤석민을 향해 세리머니를 했다. 7회 이범호의 역적 결승타가 나오며 경기

이적생의 심정을 잘 아는 만큼 호된 적 응기를 보내는 후배가 잘 해나가는 바깥의 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이범호는 "(서)재음, (김)상훈이 형이 같이 가자고 배려해주는 등 선수단의 끈끈한 분위기가 있다. 나도 예전 이미지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편안하게 잘 적응을 했었다"며 "그래도 새로운 팀에 와서 갖는 부담감은 크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편하게 던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패를 해봤기에 더 간절해진 그라운드와 더 애뜻해진 동료에 대한 마음. 어둠을 벗어난 이범호가 더욱 빛나는 이유다. 참, 세리머니에 대한 윤석민은 반응은 어땠을까? 열심히 그쪽으로 손짓을 했는데 보지 않더라는 이범호의 투정. "범호 형이 무슨 세리머니를 했어요?"라며 고개를 가우뿔하던 윤석민은 뒤늦게 세리머니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승리투수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되글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행보 장맛비에 예측불허 휴식기 갖고 주말 두산 3연전

프로야구 전망대

지루한 7월이다. 지난주 장맛비에 3경기를 쉬었던 KIA가 다시 또 휴식기를 맞았다. KIA는 주중 경기 없이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가진 뒤 주말에는 잠실로 이동해 두산과 3연전을 갖는다. 예측불허의 날씨처럼 KIA의 행보도 예측불허다. 극과 극의 플레이로 팬들을 웃고 울리고 있는 KIA는 지난 주 마무리 교체라는 강수를 두며 전력 안정화를 꾀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8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68	40	26	2	0.606	-
2 넥센	70	40	29	1	0.580	1.5
3 LG	70	39	31	0	0.557	3.0
4 롯데	67	36	29	2	0.554	3.5
5 KIA	67	35	30	2	0.538	4.5
6 두산	69	35	32	2	0.522	5.5
7 SK	68	30	37	1	0.448	10.5
8 NC	68	25	40	3	0.385	14.5
9 한화	67	20	46	1	0.303	20.0

지난 3일 SK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허용한 엔서니가 2군으로 내려갔고, 대안으로 박지훈과 송은범이 더블 마무리로 자리했다. 첫 테스트가 역전승으로 끝나면서 선수단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6일 롯데와의 2점 승부에서 박지훈과 송은범은 8-9회를 무실점으로 지켜냈다. 이범호의 한방과 역적 결승타로 5점의 승부를 뒤집어가며 연출한 대역전극이었던 만큼 더 의미 있는 승리와 세리머니가 됐다. KIA는 롯데전 승리를 터닝 포인트로 해 두산과의 승부를 버리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1무패. 4강 밖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산이지만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진담 승부다.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두 차례 연장 승부를 벌이기도 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승부이기도 하다. 마운드가 지친 1위 삼성부터 6위 두산까지는 5.5게임차. 6개 팀이 총출동해 배치되면서 매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흥미로운 그라운드 전쟁이 예고된다. 애초 주말 두산전을 기점으로 했던 이용규의 복귀는 늦어질 전망이다. 이용규는 지난 28일 왼쪽 무릎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다. 큰 부상은 아닌 만큼 주말 복귀가 예상됐지만 어깨 상태까지 감안해 넉넉히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용규가 부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타선은 안정적이다. 김선빈이 이용규를 대신 토타자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고, 4번 타자 나지완의 꾸준한 속에 이범호의 기세가 무섭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 카디르 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라크에 패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힐듯한 4강 실패 했지만... "장하다! 리틀전사"

광주일고 출신 강민국 신생 NC서 1차 지명

광주일고 출신의 동국대 내야수 강민국(21)이 신생팀 NC의 새 얼굴이 됐다. 프로야구 신생팀 NC 다이노스가 8월 1차 지명선수를 발표했다. NC의 선택은 동국대 유격수 강민국(우투우타)이었다. 176cm, 80kg의 강민국은 강한 어깨를 한 안정적인 수비가 장점으로 재치있는 타격으로 올 시즌 춘계리그에서 동국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영남대와의 준결승에서는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광주일고 시절에도 청소년대표로 활약한 유망주이자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진천후 내야수. KIA에서 1차 지명을 놓고 최종후보로 고심했던 인물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20 월드컵 8강서 이라크에 승부차기 4대5 패

한국 축구가 30년 만에 노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터키 카이세리의 카디르 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FIFA 월드컵 8강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3-3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5로 패했다. 이로써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4강 진출을 노렸던 한국은 8강에서 아름다운 도전을 마감했다. '리틀 태극전사'들은 지난해 U-19 아시아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만나 승부차기(4-1승) 끝에 승리한 이라크를 상대로 188cm의 장신 스트라이커 김현(성남)을 원톱으로 권창훈(수원)을 새도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4-2-3-

1 전술로 나섰다. 전반 초반 광활하던 균형은 이라크의 선제공격에 깨졌다. 이라크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에 가담한 김현이 이라크의 알리 아드난을 볼과 상관없이 넘어뜨렸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한 뒤 김현에게 엘로카드를 내밀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알리 파에즈는 전반 21분 침착하게 골을 성공해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선사했다. 그러나 한국은 4분 뒤 심상민(중앙대)이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페널티지역으로 향해 강력한 스로인을 시도했고,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권창훈이 솟구치며 헤딩으로 볼을 방향을 바꿔 짜릿한 동점골을 터트렸다. 기쁨도 잠시, 전열을 추스를 이라크는 전반 42분 기회를 잡았다. 알리 카심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슈팅이 골키퍼 이창근의 손을 맞고 흘렀고 반대쪽에서 쇄도한 파르코 샤르한이 슈팅으로 연결하며 1-2를 만들었다. 하프타임에 숨을 고른 한국은 곧바로 따라붙었다. 주인공은 전반 막판 강상우(경희대) 대신 교체투입된 신장 172cm의 단신 미드필더 이광훈(포항)이었다. 이광훈은 후반 5분 권창훈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차올린 프리킥을 골 지역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쇄도하며 헤딩으로 재동점골을 꽂았다. 16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연장전에 나선 한국은 연장 후반 13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파르한 샤르코에게 실점하며 좌절하는 듯 했지만 연장 후반 막판 투입된 정현철(동국대)이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깜짝' 증가리 슈팅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며 극적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120분 연장 혈투에 에어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선속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김선우(울산대)가 깨끗하게 골을 터트리며 가뭄을 출발했지만 두 번째 키커인 연제민(수원)이 실축하면서 잠시 긴장했다. 다행히 이라크의 세 번째 키커인 모함메드 자바르 아레바트가 찬 불이 골대 왼쪽으로 빛나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한국은 심상민과 우주성(중앙대)이 침착하게 골을 성공해 다섯 번째 키커까지 4-4 동점. 하지만 16강전에 한국에 미소를 지었던 승리의 여신은 이번에는 이라크에 눈길을 돌렸다. 한국은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선 이광훈의 슈팅이 골키퍼에 잡혔다. 반면 이라크는 이날 2골을 책임진 파르한 샤르코가 골을 성공시켜 결국 4강행 티켓을 차지했다. 한편 2015년 U-20 월드컵은 뉴질랜드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